

中世國語 活用に 나타난 母音衝突 回避現象에 對하여

——釋譜詳節을 中心으로——

金 鍾 圭*

1. 머리말

本稿는 中世國語¹⁾의 用言活用에서의 모음충돌의 양상과 그 회피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記述의 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음충돌(Hiatus)이란 한 형태소 내부나 또는 형태소의 경계 사이에서 非成節音[-syllabic]이 중간에 介在됨이 없이, 두개의 모음(=성절음)이 나란히 만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²⁾ 모음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話者는 입을 계속 벌린 상태에서 각 모음을 연속적으로 발음하게 되어, 調音上으로도나 聽覺上으로도나 부자연스러운 소리의 연속이 나타나게 된다. 話者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의 연쇄를 회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바, 모음충돌은 이러한 理想에 명백히 違背되는 음운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각 언어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소리의 연결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어에서 일단 모음충돌이 일어나면, 대개 子音 또는 半母音插入, 母音縮約, 母音脫落 등의 방법³⁾에 의해 이를 회피

* 국어국문학과 4년

1) 李基文(1972) 「국어사개설」(개정판)에서의 후기중세국어를 말한다.

2) 유재원(1985)의 정의를 따른다.

3) 許雄(1970)에서는 크게 자음(반모음 포함)삽입과 모음축약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반모음화, 중간소리되기, 모음탈락으로 세분하였다.

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음충돌 회피현상은 모든 경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음운현상은 아니다. 즉 모음충돌은 항상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 국어의 경우, 한자어를 비롯한 外來語에서는 모음충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향이며,⁴⁾ 또 固有語라고 할지라도 형태소의 원형을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회피현상이 일어난다. 同一한 이유에서의 모음충돌 감수는 중세국어 용언활용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세한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겠다.

이상과 같은 모음충돌회피현상에 대한 고찰은 李崇寧(1947) 이후, 주로 형태소 내부에서의 모음충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의들이 전개되어 온 반면, 형태소 경계 사이(주로 曲用과 活用 의 경우)의 그것에까지는 전반적인 이해가 미치지 못했다. 李崇寧(1954)에서 曲用과 活用에서의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한 기술이 시도되었지만, 이중모음의 해석이라는 중심과제에 가려 그 체계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本稿에서는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의 모음충돌 가운데서 특히 용언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회피현상을 가능한 한 음운론적 관점에서 記述하고자 한다. 대상으로 하는 문헌자료가 극소하여, 전반적인 照應은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한정된 자료 내에서나마 나타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기술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가 중세국어 문헌자료를 다룸에 있어 인식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표기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표기가 당시의 언어사실을 정확하게 反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술이 공허한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月印千江之曲上, 釋譜詳節 卷 6, 9, 13, 19, 23, 24, 月印釋譜 卷 1, 2⁵⁾임을 밝혀 둔다.

4) 유재원(1985) 참조.

5) 以下 월인석보는 月로, 월인천강지곡은 曲으로 줄여서, 석보상절 아무 표시 없이 나타내기로 하겠다.

2. 語幹과 副詞形語尾⁶⁾ ‘-아/어’間的 母音衝突

어간과 어미 사이의 모음충돌에는 부사형어미 ‘-아/어’가 붙는 경우와 선어말어미 ‘-오/우-’가 붙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는데, 本章에서는 前者만을 다루기로 하고 後者は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모음충돌 회피 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그 형태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⁷⁾라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制約을 가지는 반면, 형태소 경계 사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난다⁸⁾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형태소 경계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형태소를(특히 어미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대로 脫落시켜버리거나, 또는 형태소의 교체양상을 나타내는 데 지장을 주면서까지 회피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중세국어 활용에서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세국어 용언활용에서의 모음충돌 회피 방법으로는 縮約, 脫落, 半母音 插入의 세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축약이라는 용어를 同一母音의 合音⁹⁾(가아→가)과 半母音化(그리어→그려)의 두가지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는 중간소리되기(사이→새)현상도 축약으로 다루고 있지만, 15세기에는 이중모음(ㅣ, ㅑ, ㅓ, ㅕ 등)이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서의 音價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¹⁰⁾ 그러한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현상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單母音 · 上向二重母音 + ‘-아/어’

이중모음 중에서도 반모음이 先行하는 上向二重母音들은 반모음+단모음의 결합인 관계로 해서, 단모음(純正母音)과 同一한 양상을 보여주

6) 편의상 부사형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7) 李崇寧(1954) 참조.

8) 유재원(1985) 참조.

9) 모음탈락으로 보지않고, 合音된 것으로 본다. 안병희(1959) 참조.

10) 이미 李崇寧(1949), 許維(1952)에서 이중모음이었음을 究明하였다.

므로, 달리 區分 짓지 않고 같은 유형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1.1. a로 끝나는 語幹 + ‘-아/어’

모음 a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을 경우에는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모음충돌의 語形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例) 사아(六 8a), 나아(六 12b), 하아(月-24b), 오라아(六 28b), 걸나아(十九 27b), 맛나아(九 16b), 놀라아(十三 44b)

국어 용언활용에서의 同母音重出은 자연스럽게 축약(여기서는 合音을 가리킴)되어 회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세국어·적어도 釋譜詳節 편찬시기까지는—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음충돌을 규칙적으로 감수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부사형 ‘-아/어’를 밝혀 주고자 形態의 表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실제발음에 있어, 가령 ‘사’와 ‘사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발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斷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表記에 있어서는 ‘사아’와 같이 모음충돌 語形을 유지하면서까지 形態論的인 配慮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음충돌 유지형이 비단 單音節語幹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맛나—’, ‘걸나—’, ‘놀라—’ 등의 多音節語幹에도 규칙적으로 나타남을 보아, 어간의 음절수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간 ‘가—’는 예외적으로 ‘가’와 ‘가아’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時期의 表記에 국한하자면, 어간 ‘가—’의 형태론적 特性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약형이 月印釋譜에서는 어간 ‘나—’에도 나타남을 보아(나, 月-45a), 이 시기가 同母音重出形을 유지하던 단계에서 축약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사실은 法華經諺解나 楞嚴經諺解에서는 오히려 축약형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더욱 확실해지고 할 수 있다.

2.1.2. ㅑ로 끝나는 語幹 + ‘-아/어’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語形들이 모두 yə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역시 모음충돌을 유지하게 하는 형태가 규칙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例) 꺾아(六, 6a), 혀아(九, 35a), 췌아(九, 8a), 너아(曲 8b), 셔아(月, 二 64b), 서어(二十三 17b)

이 경우에 있어서도 2.1.1.에서와 마찬가지로 ‘꺾아’ 대신에 ‘꺾’ (月序 21a)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1.3. ㅓ로 끝나는 語幹 + ‘-아/어’

① 語幹末音節이 頭子音을 갖지 않고 바로 ㅓ로 끝나는 語幹에 ‘-아/어’가 연결되어 모음충돌이 일어나면, 축약이 일어난다.

(例) 와(六 7b), 새와(月二 5a), 끝와(二十四 21b), 마귀와(月序 18a)

② 語幹末音節이 頭子音을 가지고 ㅓ로 끝나는 語幹에 ‘-아/어’가 연결되면,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유지한다.

(例) 보아(九 32a), 쏘아(十三 10a), 모도아(六 9b), ㅓ초아(曲 41), 나토아(曲 25), ㅓ토아(月二 6a)

위와 같은 분류는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지만, 규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는 두 語形群의 共存이 그 어간말음절의 子音性과의 關係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인 것이다. 모음충돌의 면에서 볼 때,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것들이 그 회피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수 的인 현상이라고 간주해 버리기는 힘들다고 본다. 사실, 음성학적으로

로도 한 音節의 子音性 有無는 그 調音의 側面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위의 구분에 예외가 되는 것은 어간말음절 두자음이 h이면서 o로 끝나는 어간인데, 그 h가 母音間 位置일 경우에는 축약형과 모음충돌 유지형이 수의적으로 둘 다 나타난다. 반면, h가 모음間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모음충돌 유지형만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例) 비호아(六 10a), 비화(曲 35), 피호아(二十二 54a), 피화(曲 68), 싸화(九 16b)

난호아(十三 37a), 논호아(十九 6b)

이러한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 아닐 수 없고 또한 그 차이의 원인도 규명할 수 없음을 필자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는 미루기로 하고, 다만 모음충돌과 관련된 子音性의 문제에서 h만이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사실만을 여기에서 밝혀 두고자 한다.

2.1.4. u로 끝나는 語幹 + ‘-아/어’

① 語幹末音節이 頭子音을 가지지 않고, 바로 u로 끝나는 語幹에 ‘-아/어’가 연결되면, 규칙적으로 축약이 일어난다.

(例) 드리워(六 6a), 질워(九 17a), 일워(曲 48), 제워(曲 181), 멀워(月序 4a), 어울워(月序 41), 미워(月-32b)

② 語幹末音節이 頭子音을 가지고 u로 끝나는 語幹에 ‘-아/어’가 연결되면,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유지하는 語形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주어(六 13b), 두어(九 8a), 쑤어(二十四 36a), 꺾구아(月二 70b), 쥐주어(六 13a)

2.1.3의 o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준다. 그러

나, 어간말음절 두자음이 h인 경우(즉 hu로 끝나는 어간)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2.1.5. ㅏ로 끝나는 語幹 + ‘-아/어’

ㅏ(즉·)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연결되면, 규칙적으로 ㅏ가 탈락되어 모음충돌을 회피한다. ·가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탈락되는 것은 일반적인 국어 음운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例) 차(六 4b), 따(二十四 50a), 따(曲 99), ㅏ(과(月, -7b), ㅏ(月, -44b),
타(月, 53b), ㅏ(十三 10a), ㅏ(二十三 23a), 다아(十三 1a)

그러나, ‘-하다’동사의 경우는 예외로서, ·가 탈락되지 않고 ㅏ와 a 사이에 반모음 y가 삽입되어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특수성을 보여 준다.

(例) 하야(九 27b), 위하야(六 1a), 위두하야(九 11a), 양하야(九 14a)

2.1.6. ㅣ로 끝나는 語幹 + ‘-아/어’

ㅏ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ㅣ가 탈락되어 모음충돌을 회피한다.

(例) ㅏ(二十四 15b), ㅏ(曲 25), ㅏ(月序, 23b), ㅏ(月, 二 38b), ㅏ(月, 二 37b), ㅏ(月序 19a), 마초ㅏ(六 38b)

모음끼리의 결합에 있어서 탈락이 일어날 때, 두 모음 중 어떤 모음이 탈락될 것인가—즉, 어떤 모음이 강한 모음이고, 어떤 모음이 약한 모음인가—하는 의문은 母音의 強度의 문제¹¹⁾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다.

11) 유재원(1985)에서 현대국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시도된 바 있다.

2.1.7. i로 끝나는 語幹 + ‘-아/어’

i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연결되어 모음충돌이 일어나면, 축약과 반모음 삽입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회피한다. 그런데,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와 반모음이 삽입되는 경우간의 어떠한 選擇條件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어간에 수의적으로 두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例) 브려(六 2a), 구쳐(曲 154), 즐겨(六 10b), 너겨(六 10b), 주으려(九 9a), ㄹ으려(月, 一 19a), 느려(月, 二 19a), 어리어(六 36b), 조치여(十九 31a), 디여(二十三 41a), ㄹ리여(二十三 42a), 두리어(曲 189)

2.2. 下向二重母音(單母音+y) + ‘-아/어’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에 대한 규명은 李崇寧(1949, 1954)와 許雄(1952) 이후 국어 음운론 연구의 중요과제로 부각되었다. ‘니, 리, 키, 니’ 등이 15세기에는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반모음 y로 끝나는 하향이중모음들은 모음충돌 회피현상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보여,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라 하겠다. 먼저,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연결되면, 규칙적으로 반모음이 삽입된 형태가 나타난다.

(例) 달애야(六 1b), 히여(六 3b), 덕희여(九 12e), 뉘여(十三 28a), 외야(曲 163), 메여(二十四 516), 껌여(曲 4)

하향이중모음들은 그 자체로 이미 y를 가지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半母音의 介在로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음충돌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모음이 또다시 삽입되는 語形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音韻論的 性格과의 關係하에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여기에서 삽입되는 [y]는 ‘보야호로’, ‘피외호다’, ‘고외호다’, ‘피외

하다' 등의 예에서의, 두 음절 사이에 존재하여 그들에 의하여 共有되고 있는 interlude¹²⁾의 [y]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의 [y]를 모음총돌 회피의 수단으로 삼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형으로서, 하향이중모음에 연결되는 '—어'를 設定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容認하지 않고자 한다.

사실, 중세국어의 'i, ɨ, ɛ, ɯ' 등이 이중모음이었다는 解明은 이미 異論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과연 하향이중모음들의 [y]가 純正母音 [i]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발음되었겠느냐 하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金完鎭(1964)에서는 이중모음의 해석에 3가지 방안이 있음을 제시했던 바,¹³⁾ 필자는 y 계열의 것으로 기술의 대상을 삼았으나, i 계열로의 해석이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역으로 하향이중모음과 '—아/어'의 연결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현상이 이중모음의 해석에 어떤 실마리를 던져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더 이상 세밀한 記述은 하지 않음의 것이나,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부사형어미 '—아/어'의 연결에서 반모음이 삼입된다는 점과 그것은 모음총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점만은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한다.

2.3. '—아/어' + '있다·이시다'

일반적으로 모음총돌 회피는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 사이, 또는 단어 경계 사이라 할지라도 合成語의 경우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에서는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단계에서까지도 모음총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努力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부사형어미 '—아/어'가 결합된 형태에 존재를 뜻하는 用言 '있다·이시다'가 연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축약형태가 그러하다. 이 경우에는 축약을 한 형태와 축약을 하지 않은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데, 중세국어의 특징

12) 金完鎭(1964) 참조.

13) Daniel Jones 流, i 계열, y 계열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例) 안자잇더시니(月, 6a), 안젯더시니(曲 3), 한스뵈는(十九 40b), 한스뵈
잇느니(九 45b), 앳더니(六 29b), 맛나잇느니(六 11a)
차이셔(六 4b), 덕회여이셔(六 12a), 왜시며(月, 28a)

현대국어에서는 ‘ㅁ, ㅂ, ㄴ’ 등이 단모음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축약 중에서도 중간소리되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으므로 半母音化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月印千江之曲에는 규칙적으로 축약형태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詩歌라는 장르상의 특성과의 관련下에서 설명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중세국어 모음충돌의 경계범위를 벗어난 형태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새로운 音韻規則의 設定 必要性을 발견하게 된다. 즉, 위의 예들에서, 어미 ‘-아/어’와 ‘잇다·이시다’ 사이에 존재하는 休止를 수의적으로 削除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語形 사이에 休止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약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어느 단계까지는 어미 ‘-아/어’가 붙은 형태와 존재사 ‘잇다·이시다’의 연결에서 수의적으로 휴지가 삭제되는 규칙이 존재했음을 가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음충돌의 회피를 위해 축약이 일어났다는 式의 해석을 하고자 한다.

3. 先語末語尾가 介入된 母音衝突

活用에서 선어말어미가 개입된 모음충돌에는 어간과 선어말어미 사이의 충돌과 어미들 사이의 충돌이 있다. 선어말어미 자체가 형태론적으로 설정된 것이니만큼, 그 형태론적 고찰이 先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선어말어미가 개입된 모음충돌도 그 회피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해석의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어말어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에는 의거하지 않고, 몇개를 選定하여 개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3.1. ‘-시-’를 中心으로

어미 ‘-시-’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어미가 연결될 때는, 모음 충돌 회피현상이 축약에 의해 나타난다.

(例) 가샤(六 1a), 니르샤디(六 1a), 머리₂가셔아서(十九 31a), 피호산(曲 30), 일우산돌(曲 115)

예에서 나타나는 ‘-샤-’라는 형태에 대해서 종래 몇 가지 견해를 달리한 해석들이 있어 왔다. 許雄(1958)에서는 ‘-샤-’를 ‘-시-’와 ‘-오/우-’의 結合¹⁴⁾으로 보았고, 安秉禧(1963)에서는 ‘-샤-’를 순수히 음운론적으로 설명가능한 ‘-시-’의 異形態로 보는 것이 설명의 편의를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샤-’를 ‘-시-’와 ‘-아-’의 結合形式으로 설명한 任洪彬(1980)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여기에서의 ‘-아-’를 이미 任洪彬(1980)에서 ‘-오/우-’의 교체형으로 설정했던 바, 이는 許雄(1958)과 安秉禧(1963)의 설명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입장에서의 首肯可能性의 不在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시-’와 ‘-오/우-’의 결합으로 ‘-샤-’가 나타난다는 해석은 음운론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시-’와 ‘-오/우-’의 결합형이 당연히 ‘-쇼/슈-’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 이형태로서의 ‘-샤-’의 설정도 역시 지나치게 설명의 편의에만 치중한 듯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해석을 取하게 된다면, 가령 ‘니르샤디’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샤-’와 ‘-오/우-’간의 모음충돌로 因한 ‘-오/우-’의 탈락현상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以上の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任洪彬(1980)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오/우-’의 교체형으로서의 ‘-아-’의 설정문제는 통사론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샤-’가 ‘-시-’와 ‘-아-’의 결합으로 인한 축약형태라

14) ‘-시-+ -오/우-’ → 「샤」+ zero 로 해석하였다.

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그리고, 역시 중세국어의 용언활용에 나타나는 어미 ‘-쇼셔’에서의 ‘-쇼-’도 같은 맥락에서 ‘-시-’와 ‘-오-’의 결합형일 가능성을 附言해 둔다.

3.2. ‘-오/우-’를 中心으로

意圖法으로 설명되어지는 ‘-오/우-’에 대해서는 3.1.에서 이미 교체형 ‘-아-’의 설정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오/우-’와 ‘-아-’의 交替條件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語幹末 位置의 母音과의 관련 下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a 나 ㅏ 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되는 교체형 ‘-아-’를 설정할 수 있겠다.

한편, ‘-오(우)되’, ‘-오(우)口’ 등의 어미에 나타나는 ‘-오/우-’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들을 더이상 분리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의도법의 ‘-오/우-’와 形態音素論의 樣相을 같이 하여 나타나므로,¹⁵⁾ 본고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사실, 動名詞形 ‘-오(우)口’은 용언활용의 측면에서는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하겠으나, ‘-오/우-’와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어간에 연결되고, 모음충돌 회피현상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우-’를 記述함에 있어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사실 하나는, 국어에 w로 끝나는 하향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오/우-’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연결될 때, o나 u에 대응되는 반모음 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 반모음화와 같은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y 반모음화가 모음충돌 회피 방법의 하나로서 당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對照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서, 축약을 통한 회피는 가장 간단한 절차인 반면, 반모음 삽입은 축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어나는 부득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나 u가 介入된 모음충돌에서는, i의 경우와는 달리, w 하향이중모음의 不在로 해서 w 반모화가 불가능하여, 다른 方法에 의해 회피가 수행됨을 볼 수 있다. 訓民正音에서도 w 하향이중모음에 대

15) 高永根(1981) 참조.

한 어떠한 文字的 配慮도 찾을 수 없는 바, 국어는 w 하향이중모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모음충돌 회피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우-’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충돌될 때,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양상은 어간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모음을 기준으로 한 項目別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o로 끝나는 語幹 + ‘-오/우-’

o로 끝나는 어간에 ‘-오/우-’가 연결될 때는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유지한 형태가 나타난다.

(例) 나토오리라(六 60b), 모도오디(六 28a)

어간과 ‘-아/어’의 연결에서와 마찬가지로, 同母音重出의 형태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도법의 ‘-오-’를 밝혀 주교자, 모음충돌을 감수하고 형태론적 표기를 取한 편찬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3.2.2. u로 끝나는 語幹 + ‘-오/우-’

역시 同母音重出形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예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다만, 釋譜詳節 卷十九 3a에 ‘주디’라는 예가 유일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축약형태가 나타나는데, 상세한 것은 後述하기로 하겠다.

3.2.3. i로 끝나는 語幹 + ‘-오/우-’

i로 끝나는 어간과 부사형어미 ‘-아/어’간의 충돌에 나타나는 회피현상과는 차이를 보여 준다. ‘-아/어’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축약과 반모음 삽입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오/우-’의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축약만이 일어난다.

(例) 이쇼디(九11a), 너교디(九 43a), 누규리라(六 9b), 길놈(曲 15), 이쇼미

(九 11a)

3. 2. 4. 下向二重母音으로 끝나는 語幹十 ‘—오/우—’

어미 ‘—아/어’가 연결될 때와 마찬가지로,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오/우—’가 연결되어 모음충돌이 일어나면, 모음을 삽입하여 회피한다.

(例) 더대요디(二十三 37a), 내요려(二十三 58a), 알외음(十三 21a), 굴히요미(九 11a), 뵤요리라(曲 9)

이와 같은 양상은 중세국어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나타나는 하향이중모음의 特性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그 모음충돌 회피현상이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2. 5. 動詞語幹 ‘ㅎ—’十 ‘—오/우—’

어미 ‘—아/어’와의 연결에서도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특이한 양상을 보였던 어간 ‘ㅎ—’는 ‘—오/우—’와의 연결에서도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다만, 前者에서는 규칙적으로 반모음이 삽입되었던 반면, 後者에서도 수의적으로 ·가 탈락되기도 하고 반모음이 삽입되기도 하는 차이를 지닌다.

(例) 호디(六 14b), 尊호라(曲 20), 혼(十九 47a),
사랑호요디(九 57b), 호은(月序 26a)

3. 2. 6. ㅏ나 ㅓ로 끝나는 어간에 ‘—오/우—’가 연결되어 모음충돌이 일어날 경우는 일반적인 음운론적 양상과 ‘—아/어’와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ㅏ와 ㅓ가 탈락될 것으로 推定할 수 있으나, 그 예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유일하게 釋譜詳節 卷 十九 5b에 ‘더움’의 형태가 나타나 논의전개에 확신을 던져 준다.

3. 2. 7. ‘—오/우—’의 교체형으로 설정했던 ‘—아—’는 ㅏ나 ㅓ로 끝나

는 어간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釋譜詳節 卷十九, 7b에 ‘나디’라는 형태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교체형 ‘-아-’설정의 타당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나+오디→나디’式的 해석이 음운론적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아아’의 축약(合音)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간과 어미의 연결에서 일어나는 모음충돌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인 형태론적 배려에 起因한다는 것이다. ‘사아’나 ‘나토오리라’ 등의 예에서와 같이 모음충돌 회피를 위해 축약이 일어났을 때, 그로 因해 한 形態素가 어떤 잔재도 남기지 않고—즉, 원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사라져 버리게 될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다. 반면, ‘나디’의 예와 같이 ‘-아-’가 축약되어 사라져도 ‘-디’¹⁶⁾를 통하여 그 존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음충돌 회피를 수행하게 된다. 3.2.2.에서의 ‘주디’¹⁷⁾와 같은 형태에서 축약이 일어난 이유도 同一한 설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모음충돌 회피현상은 단지 音韻論的 現象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形態音素論的인 現象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모음충돌 회피현상에서 충돌에 介入하는 형태소들에 대한 形態論的 考慮가 회피의 수행보다는 명백하게 先行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3.2.8. 어미 ‘-느-’가 ‘-오/우-’와 연결될 때는 역시 ‘가’ 탈락되었던 ‘-노-’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를 ‘-더-’와 ‘-오/우-’의 결합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通說이라고 할 수 있는데,¹⁸⁾ 그 음운론적 설명 타당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나, 자세한 논의는 미루기로 하겠다. 선어말어미의 개별 형태나 그 결합형태들이 일반적인 음운론적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물론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나, 음운론적 틀을 벗

16) 항상 ‘-오/우-’를 취한다.

17) 주+우디→주디

18) 高永根(1981) 참조.

어나 완전히 설명불가능한 형태의 존재가능성을 想定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3.3. ‘—리—’를 中心으로

선어말어미 ‘—리—’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어미(疑問의 ‘—오’는 除外)가 연결되어 모음충돌이 일어나면, 축약되어 회피한다.

(例) 사모려(六2a), 가려(六 27b), 설이려뇨(六 25b), 對答히려뇨(十三 15a)

일반적으로 ‘사모려’, ‘가려’등에서의 ‘—려’는 단일어미로 인정하여 分析하지 않으나, 본고는 여기에서의 ‘—려’도 ‘—리—’와 ‘—어’의 결합형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리—’에 疑問의 ‘—오’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주의적으로 축약되기도 하고, 그대로 모음충돌을 유지하기도 한다.

(例) 머그료(十三 41b), 足료(六 24a), 니르료(十三 46a), 어드리오(九 27b), 이시리오(月, 十九)

이와 관련하여, ‘—뇨’의 형태도 비록 ‘—니오’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역시 ‘—니—’와 ‘—오—’의 결합형으로 여겨진다.

(例) 對答히려뇨(十三 15a), 잇거시뇨(十九 4a), 잇디뇨(十九 4a)

3.4. ‘—거/어—’를 中心으로

선어말어미 ‘—어—’가 介入된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해서는, 그 양상을 援引하여 이미 高永根(1980)에서 ‘—거—’의 교체형으로서의 ‘—어—’를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필자도 전적으로 그 해석에 따르는 바,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어—’가 介入된 모음충돌에서는 회피하지 않는 경우와 축약되어¹⁹⁾ 회피하는 경우의 두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前者의 ‘—어—’는

19) 하향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에는 반모음 삽입이 일어난다.

‘-거-’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로 自動詞에 결합되는 것이고, 後者の ‘-어-’는 ‘-거-’의 교체형으로 他動詞에 결합되는 것이다.

(例) 거시어늘(六 5a), 되어늘(六 35a), 뵈어시늘(曲 110), 드외어늘(曲 120)

물여시늘(曲 131), 더더시늘(曲 64), 뷘여든(月, 二 45a), 브려시늘(月 序, 10a)

물론 자동사·타동사 결합의 구분에 대한 예외도 많지만, 일반적인 양상은 대개 위의 예들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모음충돌 회피현상에서의 형태론적 장벽을 보게된다. ‘ㄱ’탈락형 ‘-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이같은 현상은 달리, ‘ㄱ’이 表面的으로는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基底構造에서는 여전히 子音性을 유지하고 있어 모음충돌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도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해석을 취하더라도, ㄱ탈락형이 관계하는 모음충돌은 회피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高永根(1986)에서는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自動詞에 교체형 ‘-어-’가 결합되는 예외적 현상을 能格性²⁰⁾의 概念을 援引하여 해결하고 있다.

淨居天 澡餅이 주근 벌에 드외야늘(曲 43)

위의 예에서 ‘드외다’가 자동사이므로 ‘드외어늘’의 형태가 나타나야 옳지만, 動作主의 設定과 관련하여 그 사정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조병’이 동작주로서 일부러 자신의 몸을 벌레가 되게 하였다는 해석을 통하여, 이 구문이 他動性을 띠게 되어 活用形에 他動詞標識가 붙은 까닭이 밝혀지는 것이다

4. 맺 음 말

우리는 以上에서 中世國語의 活用に 나타난 모음충돌 회피현상을 주

20) 국어는 대격언어라고 할 수 있으나 중세국어로 올라 갈수록 능격성을 강하게 가진다고 하였다.

로 그 출현양상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1. 모음충돌 회피현상은 음운현상이기는 하지만, 순전히 음운론적 환경에 지배받지만은 않는다, 즉, 모음충돌의 회피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형태론적 고려가 그것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형태론적 문제가 해결되고나면, 회피는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2. 모음충돌에서 어간이 동일한 환경을 가지더라도 연결되는 어미에 따라서 그 회피현상은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일지라도 ‘-아/어’가 붙는 경우와 ‘-오/우-’가 붙는 경우에 따라 그 회피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3. 모음충돌에 관계하는 音節의 子音性이 그 회피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어간말음절의 頭子音의 존재여부에 따라 회피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4. ·나 ㅡ는 모음충돌時에 규칙적으로 탈락된다. 모음끼리의 충돌에서 탈락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떤 모음이 탈락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母音의 強度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서 그 전반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되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하다’ 동사는 모음충돌 회피현상에서는 예외적인 존재로서, 일반적인 양상과는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 중세국어 하향이중모음은 모음충돌時에 반모음 삽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그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서의 w 하향이중모음의 不在는 모음충돌회피현상에서도 드러난다.

7. 모음충돌회피는 일반적으로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세국어의 활용에서는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단계에서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음운론에서의 경계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8. 동일한 조건의 모음충돌에서 그 회피현상이 수의적으로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隨意性的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진정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에 대한 정확한 究明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9. 선어말어미 형태소들에 대한 해석도, ‘-샤-’의 문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10. 음운론적 현상의 규명이 형태론적·통사론적 현상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모음충돌 회피현상을 기준으로 한 ‘-거/어-’의 교체에 대한 설명이 그러하다.

한정된 자료의 검증이라는 문제점과 아울러 필자의 학문적 능력의 부족으로 해서 本稿는 많은 오류를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본고에서 미비했던 점들에 대한 보완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끝으로, 광범위한 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기초로 하여 모음충돌 회피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照明이 이루어진다면, 국어 음운현상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參 考 文 獻

- 高永根(1980). 중세어의 어미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 _____ (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_____ (1986). 능격성과 국어의 통사구조. 한글 192.
- 金完鎭(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 논문집
- _____ (1971).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_____ (1973).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 羅秉坤(1961). 국어 Hiatus 에 대한 고찰. 부산대 국어국문학 2
- 安秉禧(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 _____ (1963). 「즈가」語攷. 국어국문학 26
- 유재원(1985). 현대국어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 劉昌惇(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李基文(197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李秉根(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李崇寧(1947). 조선어의 Hiatus 와 자음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15
- _____ (1949). “애, 에, 의”의 음가변이론. 한글 통권 106
- _____ (1954).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 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 林永千(1975). 음운일탈현상과 히아투스의 문제. 조선대국어국문학 2
任洪彬(1980). 선어탈 {—오/우—}와 확실성. 국민대 한국학논총 3
田相範(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 of Indiana
鄭然燦(1976). 국어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許 雄(1952). '애, 에, 외, 위'의 음가. 국어국문학 1
_____ (1958). 插入母音攷. 서울대논문집 7
_____ (1970). 국어음운론. 정음사
_____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